

추석 연휴 광주극장서 영화 한편 어때요

'좋은 사람' '어시스턴트' 등 한가위 상영작 공개 '원데이 시네마 시즌2' 두번째 상영작 '바퀴'도 상영



광주극장은 추석 연휴 동안 '좋은 사람',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사진은 '아임 유어 맨' 스틸컷.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연휴 동안 광주극장에서 영화 한편 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극장이 한가위 상영작을 공개했다.

먼저 15일 개봉한 '좋은 사람'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진 고등학교 선생 경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경석의 반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반 학생 세익이 범인으로 지목된다. 그날 밤 학교에 데려왔던 경석의 딸 윤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다시 세익이 범인으로 지목된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CGV아트하우스상 2관왕을 수상했다.

19일 만날 수 있는 '어시스턴트'는 꿈에 그리던 영화사에서 보조 직원으로 일하게 된 제인이 어 느날 직장 내 부조리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영화는 사회 초년생 제인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섬세하게 표현해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다. 제36회 선댄스 영화제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같은날 개봉하는 '아임 유어 맨'은 인간과 로봇의 동거를 그린 알고리즘 로맨스다. 박물관의 고고학자 알마가 연구비 마련을 위해 완벽한 배우자를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는 실험에

참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통과 3주간의 특별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마리아 슈러더 감독의 독특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주연 배우 마렌 에거트가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최고 연기상을 수상했다.

'토베 안손'(19일 개봉)은 글로벌 캐릭터 '무민'을 만든 작가, 토베 안손의 열정적인 일상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유명한 조각가인 아버지의 만류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예술을 펼치던 토베가 연극 연출가 비비카와 강렬한 사랑에 빠진 후 겪게 되는 일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광주극장이 진행중인 '원데이 시네마 시

즌 2: 반드시 끝까지 볼 것' 두번째 상영작도 만날 수 있다. 아벨 갱스 감독의 1920년대 프랑스 무성영화 '바퀴 The Wheel'(1923·417분)이 25일 오후 1시에 상영된다. 컷과 컷이 재빠르게 교차하며 열차가 충돌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철도 노동자들의 삶과 기계화된 현대생활을 다룬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2019년 디지털 복원된 버전을 상영한다.

이밖에도 '라라랜드' 음악감독의 뮤지컬 드라마 '코다', 이우정 감독의 '최선의 삶'도 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재즈로 전하는 자연에 감사

24일 김가온 트리오 공연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음악과 삶으로의 산책'을 컨셉으로 각 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인을 초대해 무대를 꾸미는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산책 여섯번째 공연에 김가온(사진) 재즈 트리오가 나선다.

'김가온, Thanksgiving Day'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곡식을 거둔 후 신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위로를 해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를 김가온의 음악으로 전해본다.

KBS 이상협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연에는 김가온을 주축으로 베이스 김성수, 드럼 이도현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날 재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더 세드 오브 마이 하트', '문 리버', '라이크 디 아더 데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재즈피아니스트 김가온은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공부했다. 미국 활동 후 귀국해 다양한 장르의 밴드활동 등을 거쳐 각종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시 음악산책 다음 공연은 오는 10월27일 피아니스트 박은식과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행복의 조건·여성의 리더십·AI 인문강좌

ACC 29일부터...사전 예약

행복의 조건, 인공지능, 여성의 리더십...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뤄왔던 ACC 인문강좌가 가을을 맞아 다시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하반기 ACC 인문강좌를 오는 2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1회 ACC 극장3에서 운영한다.

먼저 첫 번째 강사는 최연소 대법관이자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김소영 변호사. 김 변호사는 오는 29일 '한국의 여성 법률가들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 여성 법률가들의 활동상과 장래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력과 리더십을 조명할 예정이다.

10월 13일에는 '홍행 보증수표'인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을 초청해 '행복의 조건-우리 곁의 나르시시스트'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는다.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가의 신작소설 '완전한 행복'을 통해 행복에 대한 강박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유정 작가 김대식 교수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강연도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대항해시대의 인류'를 주제로 오는 11월 3일 강연한다. 김 교수는 코로나시대 이후 가속화 될 세계질서 변화 속에서 '메타버스의 뇌과학과 인류학적 의미, 가능성을 살펴본다.

ACC 누리집을 통해 강연 2주 전부터 사전예약 후 무료 참여 가능하다. 모든 강연은 채널ACC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꿈을 꾸는 청년도시 라라랜드'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인생 전환기 청년들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장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일명 '꿈을 꾸는 청년도시 라라랜드'.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1부 사회참여예술의 다

양한 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향유 ▲2부 예술이 융화된 대표적 지역 사례 탐방 ▲3부 문화예술 경험 및 창작 실습 등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문의 062-670-576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심청가' 현대적 음악 재해석 '두 개의 눈' 앙코르 공연

ACC, 10월 9·10일 예술극장1

전통 '심청가'를 현대적 영상과 음악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미디어극 '두 개의 눈'이 앙코르 공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판소리 미디어극 '두 개의 눈'을 2021 아시아문화주간 대표공연으로 선정, 오는 10월 9·10일 예술극장1에서 올린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에 양악기와 전자음악,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심학규의 삶을 토대로 심청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점도 눈에 띈다. 심청전 중심을 '효'가 아닌 심학규의 '삶'에 초점을 맞춰 눈은 멀었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내의 이야기로 구성한 것.

영상·조명 등 무대기술은 단순히 배경이 아닌 소리꾼, 연주자와 더불어 중요한 출연자 역할을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미디어극 '두 개의 눈'

수행한다. 사방으로 움직이며 이동하는 움직이는 발광다이오드(키네틱 LED)와 레이저 조명은 최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두 개의 눈'은 한국음악과 동시대 예술의 조화를 담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극장 여우락(樂) 페스티벌 개막작품으로 선정됐

다. 올해 국립극장 첫 투어공연을 시작으로 영상과 공연 콘텐츠 유통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장권 전석 2만원. ACC 누리집과 콜센터(1566-8899)에서 예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안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크로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